

현대 건축에 나타난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공공공간(公共空間)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ublic Space in Landscape Architecture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Author 김진엽 Kim, Jin-Youp /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박사수료
김정곤 Kim, Jung-Gon /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Abstract This study starts from the question about the possibility of landscape, especially the possibility to give a new vision in the aspect of publicity. Such a conc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made its appearance in the last decade of the 20th century, as the flexible network to include the changes and the specificity of the surroundings, which simultaneously focuses on the temporality—the uncertainty. Moreover landscape architecture can be defined as the architecture in which the interest on human activities lie in the center of the concept. By analyzing concrete examples, the landscape architecture can be defined in 3 aspects : unity of building and nature, void and public space, space of expans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landscape architects' statements, it can be said that the issues of publicity are always put at the starting point of landscape architecture with its attention to the way to associate an individual with the others.

Keywords 랜드스케이프, 공공성, 랜드스케이프 건축, 공공공간
Landscape, Publicity, Landscape Architecture, Public Spac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의 문화는 다양하고 복잡적이다. 문화아이콘들은 유행에 민감하여 이슈화 되었다가도 다른 무언가에 의해 잊혀지고, 이런 식의 빠른 반복들을 통해 현대의 문화는 다양하지만 불안정하다. 이렇듯 다양하고 복합적인 가치기준에 새롭게 직면한 현대 건축가들은 형태, 공간, 외피, 재료 등의 요소에 이러한 현상들을 도입하여 건축화 시키고 있다. 특이한 비정형의 건축물, 경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간들, 환상적이면서 고풍적인 표면효과 등 '파사드주의'라는 말은 이런 현실을 잘 대변해 준다.¹⁾ 그리고 개발과 성장만을 우선시한 양적개발에 주력한 결과 현대도시는 빌딩숲이라는 상징성을 가졌으나 자본과 인력들이 도시로 유입되면서 더욱 복잡해지고 시민들의 활동에 부족한 도시공간을 초래하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

서 '공공'이라는 단어가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으며, 건축에서도 공공건축, 공공공간 등에 대한 관심과 함께 우리가 처한 현실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1995년 <요코하마 여객터미널 설계경기>의 수상작과 출품작들은 거대화된 도시의 도시와 건축, 조경의 경계가 모호한 통합된 건축물의 형태를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세 영역(도시, 건축, 조경)을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방법론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중에서 도시와 건축의 문제에 대한 숙고를 담고 있는 랜드스케이프라는 개념은 중요한 논제로 등장하였다. 케네스 프램톤은 치료의 성격을 갖는 랜드스케이프를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행동하는' 도가의 전략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한다.²⁾ 1997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New Territories, New landscape'라는 전시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전시회는 현대 건축에서 랜드스케이프 개념을 주요하게 다루기 시작한 사례이다. 그 밖에도 1993년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열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jgkim@konkuk.ac.kr

** 이 논문은 2010년도 건국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1) 윤지혜, 실내공공공간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58호, 2006. 10, p.157

2) Kenneth Frampton, Toward an Urban landscape, Columbia Documents, vol.4, 1995, p.92

린 ‘Constructing Landscape’와 1994년 AA 건축학교에서 열린 ‘The Recovery of Landscape’라는 좌담회 등 랜드스케이프의 개념과 중요성이 화두로 본격적으로 다루어졌다. 현대에서 랜드스케이프의 개념은 도시-건축-조경이라는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있던 인식의 경계에서 있는 사고방식이며, 사물 자체보다는 사물과 사물 사이의 공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³⁾ 요헴 슈나이더는 ‘공공공간은 변화하였으며, 랜드스케이프는 변화한 공공공간에 대한 일종의 주석이다.’ 라고 말한 바와 같이 랜드스케이프 건축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상실되어 가고 있다고 여겨지는 공공공간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⁴⁾ 본 연구는 현대에 재해석된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정의와 건축적 해석을 통해 공적공간의 구현방식을 알아봄으로서 공적공간의 활용을 재조명 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랜드스케이프라는 단어는 17세기부터 등장한 단어지만 1990년대 본격적으로 등장한 랜드스케이프 건축은 현대건축에 도입된 것은 최근 10년 이내의 일이다.⁵⁾ 따라서 우선 2장에서는 현대사회의 특징을 살펴본 뒤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제시한 랜드스케이프의 개념의 형성과정 및 정의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현대사회의 특징에 나타난 공공공간에 대해 알아보고 랜드스케이프 건축과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4장에서는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작품을 분석하여 공공공간이 어떻게 건축물에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공공공간의 유형을 파악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연구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들을 분석하여, 현대 건축의 흐름속에서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의미를 알아보고 새로운 공공공간의 구현방식을 재조명 하고자 한다.

2. 현대사회와 랜드스케이프 건축

2.1. 현대사회의 특징

(1) 현대도시의 공적공간⁶⁾의 쇠퇴

현대사회는 급속한 속도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한번

3) 장은영,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3
 4) Eduard Bru, The Long-Distance Gaze, New territories, new landscapes, New territories, ACTER, 1997, p.18
 5) 장은영,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4
 6) 일반적 의미에서 공적공간이란 “가시적이고 접근 가능한 장소로서, 공중들이 의식을 행하고, 인정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하고 생각해낸 주장들을 내놓는 곳이다” 나아가 공적공간은 “공동체적 드라마가 연출 될 수 있는 무대”로서 이러한 공간들은 현재의 거주자들을 사회적으로 묶어준다. 도시공간의 인문학적 모색, 도서출판 메이테이, 2009, p.226 인용

조성되면 재 조성되기 어렵기에 도시공간은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맞춰가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므로 현대의 공간은 더욱 복잡적이고 유연한 기능이 요구되어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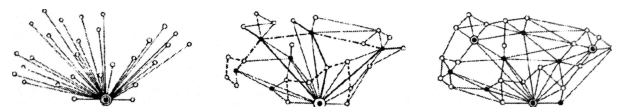
최근 도시 공공공간은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쇠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공공공간의 쇠퇴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방식의 변화이다. 통신장비의 발달로 인해 대면접촉의 필요성이 감소하였다. 둘째, 건축주의 이기적인 가치관이다. 대개 소유 및 관리의 주체가 사기업인 경우 흔히 나타나는데, 공적공간에 휴식 시설을 만들지 않아 공간이용을 막고, 만들더라도 관리를 하지 않아 공간이용을 막는다. 셋째, 제도과 행정의 편의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적공간에 대한 형식적인 인가와 관리를 하고 있다. 넷째, 이용자의 무지와 무관심이다.

(2) 경계의 모호함과 인식의 변화⁷⁾

현대 사회에서는 물리적인 공간의 경계가 더 이상 그 의미를 잃어감에 따라, 많은 것들의 경계 및 차이, 구분이 불분명해져 갔다.⁸⁾ 또한 사회 전반에 걸쳐 팽배해 있는 근대의 이분법적 사고체계에 대한 반발로 모든 대립되는 것들 -공과 사, 내부와 외부 등-의 경계와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따라서 현실은 더 이상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안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동적인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었고, 이러한 현대 사회의 변화 가능하고, 예측 불가능한 특징을 ‘불확정성’이라는 측면에 주목함에 따라 도시와 건축을 이해하는데 많은 변화가 요구된다.

(3) 다양하고 확장된 범위의 현대도시

경계의 모호함, 리즘적 구조를 갖는 현대의 도시는 중심성을 갖던 전통 도시와는 다르다. 그림1에서 보듯이 다중심의 그물망 같이 확산된 형태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a) 방사형의 단핵구조 b) 초기 그물망구조 c) 다중의 그물망 형태의 다핵구조

<그림 1> 다중심, 다핵 구조로의 변화

* 출처: 장은영,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12

그리고 현대 도시는 건축이 주로 다루었던 물질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비록 물질적으로 구축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존재하는 사람, 정보, 물질 등의 흐름이 형성하는 영역으로 함께 구성된다. 따라서 유사한 것들끼리 인접하여 영역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며, 서로 인접한 것들

7) 장은영,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10
 8) Eduard Bru, The Long-Distance Gaze, New territories, new landscapes, New territories, ACTER, 1997, p.6

사이에 유사점을 전혀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거’, ‘서비스’, ‘생산’, ‘여가’가 인접한 공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관찰되는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⁹⁾

이러한 현대 도시 변화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탈산업화를 겪게 되었고, 이에 따라 도시에 새로운 주변지역이 생겨나게 되었다.¹⁰⁾ 나아가 정보화 시대의 네트워크 사회 속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즉각적이며, 순간적으로 일어나게 됨으로 인해, 이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사람 또는 장소는 외부 세계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을 겪게 되며, 이러한 것이 비물리적인 의미에서 또 다른 주변지역을 형성하게 된다.¹¹⁾

2.2. 현대적 의미로의 랜드스케이프 건축

(1) 랜드스케이프의 개념의 변화

랜드스케이프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고대 영어 단어인 ‘landskip’에서 변화된 것이다. 17세기에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나타났던 땅위의 자연 경관을 그린 그림인 풍경화를 의미하는 회화분야의 전문 용어였던 ‘landschap painting’과 같은 의미였다.¹²⁾ 또 다른 어원적 주장은 존 스틸고와 썬슨에 의한 것인데 고대 독일의 ‘land schaft’라는 용어가 네덜란드의 ‘landskip’보다 먼저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의하면 ‘landschaft’는 장면의 개념이 아니라, 작업공동체의 환경이나, 주거, 목초지 등의 배치에 관한 개념이었고, 따라서 이것은 공간의 조직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한다.<그림 2>



<그림 2> 얀 호이엔, 강 풍경, 1652

다시 말하면 ‘landschaft’는 건물과 대지와 관계뿐만 아니라 시간적 개념을 가지는 공간과 행위 장소의 패턴의 관계까지도 의미한다.

18세기의 랜드스케이프의 개념은 현대적 상황과는 달랐다. 이 시기의 건축에 있어서의 픽처레스크는 당대의 이상화된 풍경을 구성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신고전주의 시대라 부를 수 있는 이 시기의 랜드스케이프 개념은 자연에 대한 감상적 이해를 중심적 동인으로 삼고 있

는 픽처레스크의 개념으로 구체화 된다고 정리할 수 있다.¹³⁾ 픽처레스크의 개념이 건축에 영향을 미친 것은 18세기 이후 등장한 풍경식 정원을 통해서이다.<그림 3>



<그림 3> 헨리 호어 2세, 스타워헤드 가든, 1741

풍경식 정원을 통해 이제까지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던 건축은 정원의 한 부분을 이루는 부속물로 취급받게 되었다. 다시 말해 픽처레스크의 개념으로 풍경을 구축했을 경우 관찰자는 명확한 전체상을 지각할 수 없으며 복잡하고 혼란한 이미지만이 인식된다. 이 때 픽처레스크의 구성을 이루는 요소들 간의 관계는 하나의 명확한 전체상에 수렴되는 르네상스식의 건축관과는 달리 요소들의 단편적 이미지만이 강조될 뿐이다.¹⁴⁾ 이와 같이 픽처레스크의 개념은 자연의 거침, 의외성, 불규칙성 등을 그대로 재현하려 했다는 점과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시간의 변화하는 개념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현대의 랜드스케이프 개념과 맞는 부분이 있지만 픽처레스크의 개념은 건축을 전체와의 관계가 아닌 자연속의 단편화된 요소로 여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¹⁵⁾

20세기의 랜드스케이프는 로버트 스미슨, 마이클 하이저와 리처드 롱과 같은 예술가들에 의한 대지예술과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모더니즘 문화와 진보적인 예술운동에 의해 무시되었다.



<그림 4> 로버트 스미슨, 나선형 방파제, 1961



<그림 5> 크리스토, 둘러싸인 섬, 1995

랜드스케이프의 회복을 위한 요소는 1970년대 이후에 대지예술운동의 출현이다. 1960년대 후반 영국, 독일, 미국에서 성행하였는데 이 운동은 현대 건축가들로 하여금 현대의 변화하는 위상에 대응하는 실마리를 랜드스케이프에서 찾으려 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 로버트 스미

9) Manuel Gausa, Housing : New Alternatives - New Systems, ACTAR, 1998, pp.43~45
 10) Alex Wall, Programming the Urban Surface, Recovering Landscape,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p.234
 11) Manuel Gausa, Housing : New Alternatives - New Systems, ACTAR, 1998, p.43
 12) Florian Beigel and Pilip Christou, New landscapes, New territories, ACTER, 1997, p.190

13) 안용희, 건축형태와 도시의 풍경론,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p.28
 14) 홍지학, 현대 건축에 나타난 'landscape' 개념의 층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14
 15) 김광현, 풍경의 3가지 양상, 공간 9305, pp.22~25

슨, 크리스토, 마이클 헤이저등이 대표적인 작가들이며, 이들은 형식과 개념에 있어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분리시키지 않고 함께 고려했으며, 퇴적지, 사막, 폐광, 오염된 강 등의 장소 그 자체를 예술적 대상으로 제시하고 일상적 재료를 예술적 소재로 사용하는 일련의 작업들을 보였다.<그림 4, 5>

이들은 비록 땅과 재료에 주목한 것이었지만 빠른 속도로 흘러 다닌다. 이곳은 과거의 방식으로는 정의될 수 없는 애매한 공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가 발전하면서 교통, 상하수도, 정보통신과 랜드스케이프 개념을 회화적이고 목가적인 장면개념으로 보는 것을 거부하고 주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하는 힘의 장으로서 대지예술을 인식하였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많은 건축가들이 관심을 가지는 랜드스케이프 개념은 전원의 풍경 또는 조경 개념과는 다른 것이었다. 여기서의 랜드스케이프 개념은 주변 환경속의 일부로써 작동하는 장치로 보는 것이다.¹⁶⁾ 이와 같이 20세기 후반에 와서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랜드스케이프 개념은 사물을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이며 자연과 문화를 통합하는 도구이고 주변 환경과 자연, 도시를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적이며 거대하고 무한한 네트워크망으로 보는 관점이다. 나아가서는 일상의 장소나 배경과의 통합을 추구하는 개념이다.¹⁷⁾

(2) 현대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등장 배경

기존의 랜드스케이프는 경관적인 의미로서 해석이 주를 이루었고, 배경으로의 의미만 중시하였다. 그리고 모더니즘 건축에 이르러 더욱 심화되었는데, 건축의 기능적 측면의 강조로 인해 건축과 랜드스케이프의 이분법적 사고로 분리되어 인식되었다.

첫째, 건축을 오브제로서 간주하려는 근대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과정이었다. 건축분야의 모든 논의들이 공공성보다는 오브제로서의 개별건축에만 초점을 맞추어 전통도시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공공 공간들, 즉 길, 광장, 전이 공간 등이 근대 이후 건물 내부로 옮겨지면서 외부공간은 건물과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둘째, 도시 속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와 깊은 연관을 갖는다. 현대의 도시는 사람, 자동차, 상품, 정보 같은 복잡한 네트워크들이 서로 겹쳐지거나 중복되면서 발생하였다.

셋째, 건축 표현기술의 발전이다. 예전의 유기적이고 반기하학적인 형태를 추구했던 건축적 경향들이 확산되지 못했던 큰 이유로 표현상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3) 랜드스케이프 건축¹⁸⁾의 정의

16) 조문희, 한국적 특성이 반영된 랜드스케이프 건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9

17) 장은영,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25

현대 도시는 규정되지 않은 특성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복잡성과 불확정성'이라는 말로 함축할 수 있다. 우리 도시는 불확정성의 공간이며, 유동성과 복잡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랜드스케이프 건축 개념 또한 불확정성과 복잡성에 대응하려는 시도로서 현대도시의 문제와 유사성을 띄고 있다.¹⁹⁾

우리에게 파주출판단지로 알려져 국내 건축가에게도 영향을 미친 플로리안 베이겔은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개념에 대해 '도시자체가 풍경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개념으로 랜드스케이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랜드스케이프와의 연속성이나 연결성을 지닌 도시적인 개입으로 이해해야 한다.'²⁰⁾고 하였고 또한 '우리는 사물과 사물사이, 즉 빈공간에 주목한다. 랜드스케이프는 모든 스케일에서 작용하며 땅의 컨텍스트를 이용한다. 랜드스케이프 디자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땅이다.'²¹⁾ 라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새로운 담론으로 등장한 랜드스케이프 개념은 사물을 바라보는 인식에 관한 문제이며, 주변 환경과 자연, 도시를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동적이며 거대한 네트워크망으로 인식하는 관점이다. 이는 자연과 문화, 일상의 장소나 배경과의 총합을 추구하는 개념이며, 또한 더 이상 건축적이거나 조경적인 대상을 지칭하는 명사가 아닌 과정, 행위 등의 동사를 의미한다. 랜드스케이프 개념은 불안정하고 고정되지 않으며,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유동적인 불확정성의 현대사회를 담는 틀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건축물의 구성에 관한 해결적 도구가 아니라 주변과 관계 맺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써 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랜드스케이프 개념은 동시대 건축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으며 다양한 실험적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3.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공공공간의 개념

3.1. 공공공간의 개념

공공공간의 일반 사회구성원 전체가 소유하고 이용하며 수혜의 주체가 되는 장소이다. 이것은 사유의 개념과

18) 이전에는 'landscape gardening'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일부 학자들이 'architecture'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조경만의 독자성이 약화된다는 'landscape design' 이나 'landscape planning'이란 말을 사용 할 것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랜드스케이프 건축은 건물과 주변환경을 소통시켜주고, 도시-건축-조경을 하나의 사고 방식으로 통합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공공성의 문제점이 건물과 도시의 관계성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19) 조문희, 한국적 특성이 반영된 랜드스케이프 건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13

20) 플로리안 베이겔, 불가시성을 향하여, 건축과 문화 1996년 5월호, p.186

21) Florian Beigel, Urban Landscape, Quaderns 216, p.39

반대의 의미이며,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통된 삶의 영역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공간은 인간과 인간 간의 상호 관계를 통해 공공의 관계를 형성시킴과 장소를 활성화시키는 사회 통합적인 성격을 내포한다.

코스토프와 한나 아렌트가 설명하는 공공공간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공공공간의 의미

구분	의미	공통요소
코스토프	만남의 장	개방성, 제류성
	행위의 자율성	
한나 아렌트	가장 폭 넓은 공개성	
	공동구축 후 내부에 거주하고 있는 공동성을 갖는 것	

3.2. 현대건축에서 공공공간의 특성

(1) 개방성



<그림 6> 렌조 피아노, 폼피두 센터, 1977

공공공간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간이며, 개방성은 건물 외부공간과 도시의 각 부분들을 기능적, 미관적으로 연계시키고 건물들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개방공간이자 매개공간이다. 파리의 폼피두센터는

경사진 앞 광장을 두어 도시와 열린 공간의 관계를 맺고 있다. 현대기술을 이용한 장치에 광장과 건물이 관계를 맺고 있어 광장과 건물 모두 활성화를 이루고 있다.

(2) 복합성

건물에 제시되는 프로그램의 새로움은 여러 가지 단일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프로그램이라는데 있다. 현대에는 다양한 요구에 의해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담은 건물들이 많이 계획되고 있다.



<그림 7> 헤르조그 & 드 뮌론, 테이트 모던 갤러리, 1995

런던의 테이트 모던 갤러리는 조각전시를 위해 화력발전소를 리노베이션 한 건물이다. 전시공간은 조용하고 집중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고, 공공 프로그램인 터빈홀은 걸으며 이야기 하고 다른 기능을 선택 할 수 있는 공간이다.

(3) 상호작용성

인간은 물리적인 환경에 적응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 환경을 지각하고 인지하는 또 다른



<그림 8> 램 쿨하스 & OMA, 시애틀 공립 도서관, 2004

심리적 과정이 존재함으로 인간과 환경이 상호작용함을 의미한다.²²⁾ 공공공간에는 개인과 집단의 모임이 상호관계성을 가지고 일어난다. 상호작용의 개념은 타인, 건축 환경, 자연

환경, 도시 구성요소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시애틀 공립도서관은 일과 즐길 수 있는 공간의 접점을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는 시민들을 위한 정보공유화의 축을 제안한다. 드라마틱한 건축의 외피형태를 가진 독특하고 도시와 상호작용하는 빌딩이다. 진입공간을 도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정보공유의 공간을 제안한다.²³⁾

(4) 불확정성

불확정성은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개념이며, 모든 관계를 확정적이지 않고 가변적이며 일시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²⁴⁾



<그림 9> 베르나르 추미, 라 빌레뜨 공원, 1998

라 빌레뜨 공원은 공간, 이벤트, 움직임의 상호작용이라는 테마가 잘 적용되었고, 다양한 형태들이 동적으로 위치하여, 예측하기 힘든 이벤트를 창출 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공간에 모호하고 불확정한 의도로의 계획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지속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²⁵⁾

3.3. 랜드스케이프 건축과 공공성

(1) 건물과 자연의 통합

랜드스케이프 건축은 시각적, 물리적인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자기만의 영역성을 가짐에 있어 내/외부의 일체화를 시도한다. 연속적인 하나의 풍경을 제공함으로써 같은 공간에 있다는 느낌을 주며, 이러한 경험의 공유로

22) 정다이, 현대 공공공간에 나타나는 랜드스케이프 디자인 특성 및 방법에 관한연구,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26

23) 신일성, 공공성을 강화한 빌딩의 진입공간에 관한 디자인 모형 사례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7, p.35

24) 정다이, 현대 공공공간에 나타나는 랜드스케이프 디자인 특성 및 방법에 관한연구,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28

25) 신일성, 공공성을 강화한 빌딩의 진입공간에 관한 디자인 모형 사례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7, pp.29-30요약

서 공공성을 형성하게 된다.

(2) 보이드로 공공성 구현

랜드스케이프 건축은 사물과 사물 사이의 공간에 주목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사이공간으로서 외부 공간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외부 공간은 보이드라는 형식을 통해 안과 밖을 구분하는 의미를 넘어 건물과 상호작용하는 형태를 나타낸다.

(3) 외부로의 확장

랜드스케이프 건축에서의 공공영역은 개별 건물이 각자의 개체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속으로 녹아 들어가 경계가 사라진 연속성을 가지며 공공성의 문제에 접근한다.

4. 작품 분석

이번 장에서는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사례를 통해 공적공간의 구현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건축가의 선정은 최근 건축작업에 있어 랜드스케이프적 특성이 드러나는 건축가 중에서 그 이론이나 작품활동에서 인정을 받은 건축가의 작품을 선정했다. 선정된 건축가의 작품 전부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랜드스케이프적 성향을 띠는 작품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4.1. 건물과 자연의 통합

(1) 요코하마 국제 여객선 터미널(F.O.A, 일본, 1995)



<그림 10> 요코하마 국제 여객선 터미널

요코하마 국제 여객선 터미널은 고립된 지역에 세워졌기 때문에 대지와 건물을 완전 통합시키는데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지형과의 결합을 통해 주변 환경과 일체가 된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터미널이 지니는 상징정보보다는 주변 환경에 흡수되는 일부로 인식하여 공공공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접근을 유도한다.²⁶⁾ 수평적인 건축은 주변

대지에 자연스럽게 융화되어 지형처럼 받아들일도록 계획하였다. 요코하마 시민과 외부인 이용객의 중재를 인공적인 판을 통해 실현하였다. 도시의 표면은 이음매 없이 바로 연장되어 항구의 탑승 레벨까지 연결되며, 특별한 영역의 구분이 없는 구성을 취한다. 그리고 연속적인 표면은 동선계획에 따라 주변환경과 건축이 자연스럽게 내부 공간까지 이어진다.

26) 조영직, 폴드 공간에서 나타나는 생태학적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p.80



<그림 11> 입구와 주변대지의 연결부분

<그림 12> 연속적인 표면

<그림 13> 터미널 내부

(2) Villa VPRO(MVRDV, 네덜란드, 1997)



<그림 14> Villa VPRO의 전경

기존의 방송국과 오피스를 하나의 공간에 열린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바닥 형태의 조작을 통해서 지형과 건물의 관계성을 형성하고 바닥판을 깎아 내부로 확장시켜 외부에서 내부로의 자연스러운 접근을 유도함과 동시에 외부의 랜드스케이프를 내부로 끌어들이고자 했던 의도와 함께 외부인지 내부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한 느낌을 준다. 바닥과 벽과 천장의 일체화를 통해 절속을 가진 형태적 연속성을 가지게 된다. Villa VPRO는 연속적인 바닥면에 의해 Villa VPRO 도시가 가지고 있는 지표면이 건축의 내부로 연결되며 도시와 건축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다.



<그림 15> 바닥판의 접힘

<그림 16> 내부사진

(3) 올림픽 사이클 경기장, 수영장(도미니크 페로, 독일, 2002)



<그림 17> 올림픽 사이클 경기장, 수영장

건축과 자연이 경계를 허물고 통합하고, 이 자체가 두께를 갖는 하나의 거대한 판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공공영역을 새롭게 정의하였다. 2개의 경기장은 단순한 형태로 대지 속에 묻음으로서 자연과 일체화된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부구조는 건물 자체가 되고, 판의 윗부분은 자연으로 덮힌 공공공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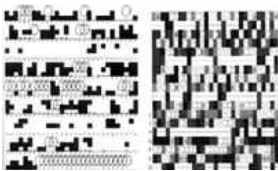
<그림 18> 새로운 공공공간으로의 판

또 건물의 지붕을 금속 재질로 마감하여, 지붕을 산책하면서 빛에 의해 반짝이는 건물을 호수 같은 느낌을 받도록 하였다. 이는 인공과 자연의 경계를 흐림으로써 발생하는 감각의 공유를 통한 연합이라고 할 수 있다.

4.2. 보이드로 공공성 구현

(1) 델프트 주거 계획(MVRDV, 네덜란드, 1992)

프로그램을 각 주호마다 다르게 조합하여 발생한 차이를 평면과 단면에서 보이드와 솔리드의 조합을 연구한 사례이다. 그 중 변화하는 'sequence'라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움직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보행자의 움직임에 따른 변화하는 시퀀스는 보이드와 솔리드로 구성된 단위 유닛을 배열하고 조합함으로써 전체 속에 하나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공공성을 얻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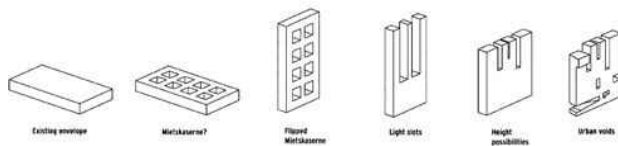


<그림 19> 평면과 단면의 보이드와 솔리드의 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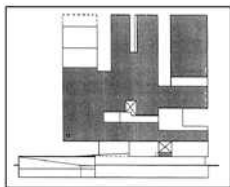
<그림 20> sequence

(2) 베를린 보이드(MVRDV, 독일,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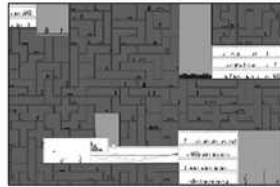


<그림 21> 수직판에 형성되는 보이드의 과정

보이드가 삽입된 수직의 판은 이질적인 형태를 갖는 주호들로 구성되며, 주호들 사이에 공공의 영역인 사우나, 상점, 유치원, 운동시설 등을 넣어 공과 사가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있다.



<그림 22> 입면도
어두운 부분 : 주호 밝은 부분 :
공공 영역



<그림 23> 부분 단면도

보이드를 둘러싼 영역과는 시각적인 교류는 없으나,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외부와 소통 가능한 하나의 공공영역의 의미를 갖는다. 보이드 공간은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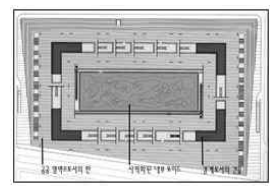
로 휴게 영역으로 고정된 기능을 부여하지 않고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게 하였고, 이것은 건물의 외부에 있는 도시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프랑스 국립 도서관(도미니크 페로, 프랑스, 1995)

프랑스 국립 도서관은 파리의 새로운 지구에서 중요한 지점이며, 새롭게 개발되는 지구의 중심에 위치한 건물이다. 전체 구성 자체가 보이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건물은 경계형성의 역할만을 하고 시각적인 소통을 이룬다. 외부의 판자체가 공공영역의 역할을 한다. 중앙부분에 조성된 보이드는 정원을 만들고 주위에 열람실을 연결하는 복도를 두어 이용객들이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였다. 자연은 번잡한 산책로와 고요한 열람실이라는 상반된 성격의 공간을 자연스럽게 분리시켜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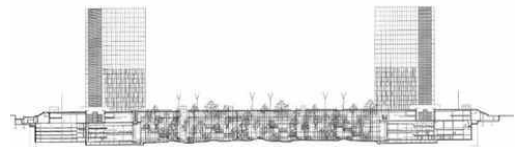


<그림 24> 도서관 전경



<그림 25>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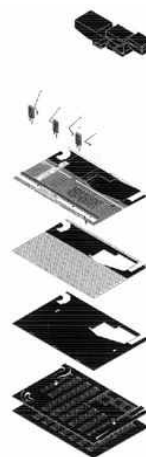
페로는 공공을 위한 거대한 판 위에 외부 보이드와 인공적인 자연의 내부 보이드를 이중으로 사용함으로써 내부와 외부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형성하였다.



<그림 26> 단면도

4.3. 외부로의 확장

(1) 쇼우부르크 플라인(웨스트 8, 독일, 1997)



<그림 27> 바닥판
레이어 구성

지하주차장 위를 덮고 있는 버려진 땅에 영화관 계획과 함께 진행된 광장 계획에서 비어 있는 광장을 제안하였다. 주변 거리보다 3높은 평평한 판으로 구성된 광장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지원하기 위해 두께를 가진 판의 형식을 띤다. 동일한 높이의 판이지만 다양한 행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광장의 이미지가 끊임없이 변화한다. 사람들은 하부구조가 지면에 드러난 부분을 중심으로 모이거나 움직인다.²⁷⁾ 또한 하부구

27) 장은영,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

조에 따른 다양한 텍스처는 희미하게 영역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게 한다. 조명설비, 분수 시설, 가벽 설치를 위한 장비, 텐트 설치를 위한 말뚝 등의 서비스 설비를 하부에 포함하고, 표면에 이것을 텍스처로 표현한 두꺼운 판은 시간과 용도에 따라 광장을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시킨다.

(2) 베이루트 야외시장 재개발(플로리안 베이겔, 레바논, 1994)



<그림 28> 베이루트 야외시장 단면도- 대지와와의 일체화

대지의 연장선에서 2개의 판을 사용하여 인공 지형을 만들어 하층부에 놓이는 시장이 하부구조를 형성하고, 상층의 공공광장에서 발생하는 행위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²⁸⁾ 경사진 대지의 윗부분인 웨이간드 거리에서 상층부의 판을 시작하고, 아래쪽 판은 트라블라우스 거리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림 29> 모형사진-상층부 판의 형태

이 두 판의 사이공간이 야외시장이 되며, 위쪽 판은 야외시장의 지붕층이 된다. 지붕층은 3개의 도시 접점에 위치한 부지의 성격을 바탕으로 주변지역으로 연결된다.²⁹⁾ 마치 대지의 연장선처럼 인식이 된다. 주변과의 연속성을 갖고 융합된 모습을 보일 뿐 아니라,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보여준다. 이처럼 인공판은 마치 대지의 연장선처럼 인식되어 사람들간의 연합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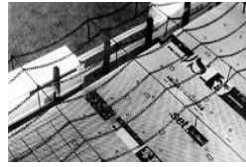
(3) 나라 컨벤션 홀(플로리안 베이겔, 일본,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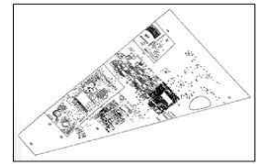
<그림 30> 개념 모델-매트

직사각형 구조로 나타나고 있는 나라 분지의 매트에서 영감을 얻어 3개의 인공적인 지형을 만든다. 사각형 부지의 짧은 변을 따라 보행자 전용 다리를 통해 3곳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기울어진 표면에 띠 모양으로 미디어가 있는 거대한 스크린을 깔고, 조명을 설

치하여 간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촉진시키고자 했다.



<그림 31> 파사드 - 미디어 스크린



<그림 32> 이벤트홀 평면도

이러한 미디어는 다양한 이벤트를 유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결국 미디어가 바닥판의 하부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며, 스크린 위의 작품에 나타난 텍스처와 같이 하부구조를 판 위로 드러내는 지점에서 서 있는 것이다. 하부구조는 정보 파사드를 형성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공공성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5. 결론

랜드스케이프라는 개념은 현대에 와서 새롭게 정의되어진 것이다. 랜드스케이프의 개념은 과거의 경관이나 조경과 같은 환경에 국한되는 단편화된 의미가 아닌 도시의 전체를 통합하기 위한 전략으로 쓰이는 개념적인 도구이다. 랜드스케이프 건축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담아내기 위한 새로운 담론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건축물과 주변 환경을 서로 통합하고 대등한 관계로 여기고 있다.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건물과 자연과의 통합을 시도한다. 바닥판의 연속, 판의 조작을 통해 내/외부 경계를 모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연과 건물의 물리적인 경계를 허물고 통합하려는 전체성의 회복의 목적을 가진다.

둘째, 보이드 구성으로 공공성을 구현한다. 기존 공적 공간의 유형인 로비, 복도, 오픈 스페이스 등을 보이드 방식을 통하여 건물 내부에 삽입하여 다양한 공적공간을 형성하고,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공공공간과 연결함으로써 외부와 소통이 가능한 공적공간을 창조하였다.

셋째, 외부로의 확장을 제공한다. 비어 있는 외부공간을 건축물과 동일한 위계를 갖는 유닛으로 창조시켜 내부공간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유동성 증대, 시각적인 편의를 더욱 더 보장해 준다. 그리고 주변의 시설과의 연결에 용이하다. 이처럼 랜드스케이프 건축은 건축물, 도시, 자연을 연결하려는 시도로서 공공공간 구현을 목표로 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대 사회를 담는 그릇으로 랜드스케이프 건축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사학위논문, 2002, p.58

28) 장은영,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59

29) 서쪽의 주거지역과 인접해서 대지의 서쪽부분에는 인공적인 지형 판 위로 솟아 있는 긴 건물을 배치하고 주거나 사무소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했으며, 웨이간드 거리와 맞닿아 있는 부분에는 아래층의 야외 시장을 일부 위쪽으로 올림으로서 사람들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참고문헌

1. 김옥경, 랜드스케이프의 경계의 모호성에 관한 연구(램플라스와 MVRDV의 작품에서 나타난 랜드스케이프의 판의 조작 특성), 충남대 건축학부, 2007
2. 김정섭, 인공대지 개념으로 본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건축사적 맥락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7
3. 김석영, OMA 건축가의 작품에 나타난 실내공간의 랜드스케이프적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01
4. 스즈키 히로유키, 건축의 7가지 힘, 양상호 옮김, 도서출판국제, 1999
5. 윤갑근, 랜드스케이프 개념 재유형화에 따른 한국현대건축의 경향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8
6. 이옥경, 랜드스케이프 건축적 측면에서 본 장소성 표현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2007
7. 이인원,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불확정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05
8. 육광돈, 랜드스케이프 건축에 있어서 판의 조작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논문, 2003
9. 장은영,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1권 제2호, 2001
10. 한성희, 한국 현대건축에 나타나는 Landscape개념의 건축적 의미에 관한 연구, 국민대 석사논문, 2004
11. Florian Beigel 외, Time Architecture: Florian Beigelin Conversation with David Kohn, Time Architecture, University of North London, 1999
12. Hans Sedlmayr, 중심의 상실, 세계의 대사상24, 휘문출판사, 1978
13. S. Best & D.Keller, 탈현대의 사회이론, 정일준 옮김, 현대미술사, 1995

[논문접수 : 2012. 08. 31]

[1차 심사 : 2012. 09. 20]

[2차 심사 : 2012. 10. 01]

[게재확정 : 2012. 10. 12]